

# 케냐, 심각한 대기오염 해결 시급

2016년 4월 4주차

[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]

3월 18일, [사회] 케냐, 심각한 대기오염 해결할  
필요 있어

[참고자료]

Standard Digital, UNEP

케냐의 나이로비 대학교와 스웨덴의 구텐베르크 대학교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케냐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. 현지 언론들도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 시행을 촉구했다.

## 대기오염, 경제까지 위협

케냐의 대기오염이 케냐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. 나이로비 대학교와 구텐베르크 대학교는 공동 연구를 통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대기오염이 심장과 폐 질환, 암을 유발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. 이번 연구에 따르면, 나이로비 대기 중의 암 유발 인자는 세계보건기구(WHO)가 정한 기준의 무려 10배이다. 실제로 2014년 케냐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그해 호흡기 질환 발병은 1,480만 건을 기록했으며, 그중 대부분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이었다.

이와 관련해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. 현지 언론매체 Standard Digital에 따르면, 많은 노동자들이 질병으로 일터를 떠나고, 이것이 케냐의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. 케냐의 높은 의료비도 문제로 대두되었다.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, 케냐

의 의료비는 서구 국가들의 것만큼이나 높다

## ‘대기 질 규정안’ 내놓아

유엔환경계획(UNEP)이 2015년 발표한 「케냐 대기 질 카탈로그」에 따르면, 케냐 대기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이다. 케냐는 경제적인 이유로 중고차를 대량 수입하는데, 이 차량들의 낡은 배기통이 매연을 정상 수치 이상으로 배출한다. 또 다른 원인으로는 등유,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과 시멘트 제조, 담배 제조, 소각업 등 일부 산업의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지적되었다. 케냐 의회는 2014년, 차량과 공장 시설 등의 오염 물질 배출을 제한해 대기 질을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‘대기 질 규정안’을 채택한 바 있다.

## 정부 의지 보여줘야

현지 언론매체 Standard Digital은 2014년 케냐 정부가 대기 오염을 해소시킬 정책으로 ‘대기 질 규정안’을 발표했지만, 케냐 환경관리청(NEMA)의 미지근한 태도로 그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. 해당 매체는 케냐 환경관리청이 폐기물 관리, 소음 공해, 수질 관리, 습지 관리 등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. 또, 최근 케냐 환경관리청의 태업으로 케냐 제2의 도시인 몸바사(Mombasa) 주민 수천 명이 납 중독에 노출되었던 사례를 들어 ‘대기 질 규정안’만큼은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. 한편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주요 산업들은 여전히 낡고 비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‘대기 질 규정안’의 시행과 동시에 케냐 정부는 이 산업들에 배기 저감 기술 도입을 요구할 것이다.

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
주간이슈분석은 지역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자문을 구한 후 등재되며,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작성 : 한 큰 솔      자문 : 의 주 원(한양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)